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8화)



“사낌없이 주는 나무”

〈출전 : 남전 상응부경전 12.55 른나무〉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옛날에 사과 나무 한 그루와 우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보는 가끔씩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 먹었습니다.



우보는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날 우보는 나무와 자신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보는 다른 아이들 처럼 나무의 가치를 원하지 않았고 나무의 즐거움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솔모도 까투리도 모두다 하나였습니다.



그저 나무 그늘이 좋았을뿐입니다.



우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일체 만물이 행복했습니다.



부처님도 세번은 붙잡으셨다

결국 가장 염려하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한 몇 나라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안심과 오만을 비롯해서도 하듯 이라크 반군은 일본인에 이어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파병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전쟁에 참가해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30년 전에 충분히 보고 들지 않았던가!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부처님의 고국인 석가국을 침공한 이야기를 전하는 불전(佛傳)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왕은 젊은 시절에 석가국에서 당한 모욕을 복수하겠다고 공격에 나선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석가국으로 통하는 거리의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참선을 하고 계셨다. 두 번, 세 번까지는 유리왕도 석가모니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격을 일단 멈추었다. 목련이 여쭈었다. “왜 신통력으로 석가국을 지켜 구원하

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석가국 전체 사람들이 쌓은 업의 과보를 그 누가 대신 받을 것인가?” 였다. 그리고 좌선을 중지하셨다. 거칠 것 없는 유리왕은 석가국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부처님께서도 동쪽을 구원해 보시려고 유리왕의 발길을 세 번은 붙잡으셨다. 우리의 나라님은 과연 몇 번이나 미국의 발길을 붙잡으셨는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눌려 전혀 상관없는 타지에서 생을 마칠 만큼 우리 민족의 업이 두터운 것일까?

민간인을 향한 테러라며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이라크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대사관의 역할을 탓할 겨를도 없다. 당장 모든 파병 논의를 중단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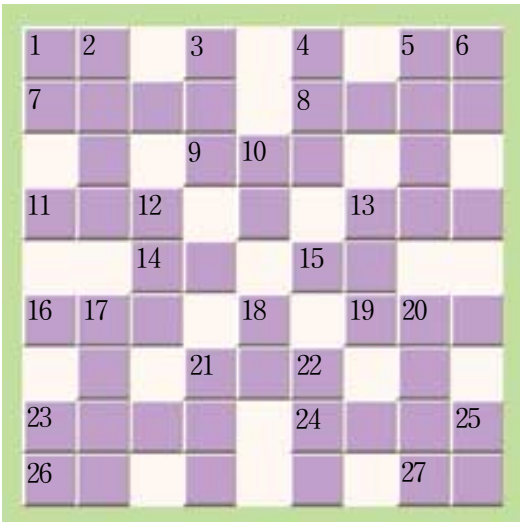
이제 첫 번째이다. 선재는 지켜볼 작정이다.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세 번씩이나 겪고 나서야 대책을 세운다면 선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인구원 연합회)

상식퍼즐

가로

1. 인삼의 잔뿌리 5. 남은 빛깔 7. 곳곳이 다 부쳐다 부쳐가 있다 8.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9. 능청맞은 사람 11. 참선할 때의 화두 '이 뭐꼬?'의 한자표기 13. 매실로 만든 차 14. 사랑하는 사람 15. 푸경, 덮는 물건 16. 아니할 수 없어, 마지못해 결국 19. 물을 길는데 쓰는 동이 21. 고수 아사리, 수제하는 계단에 대한 작별 등을 가르쳐 주는 스승 23. 하늘과 땅의 차이 24. 빠른 속도로 성장함 26. 하얀 빛 27. 증생을 건짐.



<450호 '상식퍼즐' 정답>

천	상	농	운	천	화
기	부	제	산	도	솔
상	물	시	계	천	
시	조	새	은	무	하
	김	장	무	애	
원	형	결	선	별	세
세	적	업	관	속	
이	관	사	판	음	양
해	단	장	천	계	사

세로

1. 아직, 재 2. 부처님께서 세대에서 마음을 전함 3.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 4. 한 곳에 꼭 붙박혀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 5. 규모가 크고 잘 지은 집 6. 길쭉한 바탕이 되는 물질 10. 청정한 구역 12. 암석의 노출된 부분에 부처님 형상을 조각한 것 13. 매개하는 물건 17. 뜻을 이루어 우물거리며 뽐내는 모양 18. 88세를 달리 이르는 말 20. "나와 대지의 모든 유정이 동시히 성불했다"는 부처님 사후에서 유래된 말로 모든 중생이 같은 시각에 성불을 함을 의미. 21. 도로와 도로가 엇갈린 길 22. 사교하는 능력 23. 하늘 아래, 온 세상 25. 영원한 삶, 오래도록 살.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 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선거 출마 준비중인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힐링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받거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가 발산되어 마음이 안정되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리며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드립니다. 또한 93%의 생육광선, 음이온 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물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을 차단하며 도심의 탁해 지는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건강진원 및 활력증진에 도움을 주며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세계 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기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한기를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어 기도 정진시 일념무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들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도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애 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북로 주성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송금으로 즉시 보내 드립니다. 받아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면봉동 177

대형 8/0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원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물러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 보는 사람들에겐 필수이다. 워터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복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생방송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전혀 영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집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컴퓨터 트리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화면에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아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중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용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